

##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셀

### 주 은혜 셀



####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후 15:10)

매주 토요일 저녁 대가족이 함께 둘러앉은 밥상에서부터 '주 은혜 셀'의 은혜는 시작된다. 각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해온 나물거리를 양푼에 섞어 쓱쓱 비벼 내면 주 은혜 표 비빔밥 완성. 그리고 여기에 웃음과 행복이라는 조미료가 더해지면 주 은혜 셀의 시작종이 울린다. 그러나 육신의 즐거움은 잠시, 리더의 찬양반주와 울동에 맞추려면 아쉽지만 얼른 손가락을 놓아야 한다. 이제부터는 영이 즐거워지는 시간 시작.

말씀 묵상과 중보기도와 개인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간증이 이어지는 셀모임에는 한 주간 각자의 삶이 오롯이 녹아있다. 셀은 즐겁고, 기쁘고, 편안하고, 서로 보고 싶고, 사랑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리더 이현 권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나눔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로 재충전되는 특별한 시간이다.

리더인 이현권사는 교회에서 셀처치와 돌봄을 담당하는 사역의 주역, 그가 밥 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기타 연주 솜씨는 전문가가 울고 갈 정도이니 영성으로 보나 자질로 보나 타고난 셀리더이다. 부인 문은선 권사는 3부 예배,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등에서 피아노 반주로 봉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아들 '해'로 인해 장애 부모 모임인 베데스다를 비롯해 최근에는 시온 성가대에까지 그 활동영역을 넓혀가는 마당발. 이현 권사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문은선 권사의 푸근하고 유쾌함, 거기에 우리 모두의 아들 '해'의 은혜로운 찬양과 예배를 즐기는 모습에 주은혜셀에는 늘 감동과 은혜가 넘쳐 흐른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부는 교회의 여러 사역과 봉사, 또 생업

## 셀탐방

으로 정신 없이 바쁜 와중에도 남모르게 손길을 필요로 하는 교우들에게 달려가는데 그 중에는 어려움에 처한 북한 출신의 셀 식구도 있다.

베데스다 모임을 통해 주 은혜 셀에 들어온 김수정 자매는 얼마 전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다. 현지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키우는 아들 도건이가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인지라, 늘 마음과 행동이 묶여 소극적으로 지내던 그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간증할 때는 셀식구 모두가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아들 도건이는 자폐증상이 있으나 셀 찬양시간에 파워포인트를 직접 만지며 사진을 찍고 기록한다. 게다가 다음 셀 모임을 꼭 확인하며 예약하는 통에 셀에 빠질 수 없게 만드는 총무역할을 하고 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 (벧후 3:18)**

**“주 은혜 셀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셀입니다.”**

“첫째는 교회의 전도와 선교 비전 공유 및 실천, 둘째는 성경 읽기, 셋째는 중보기도 강화 입니다.” 리더인 이현권사가 밝히는 올해 셀의 중점방향이다. 즉, 말씀-기도-전도, 무척이나 다양한 셀원 구성임에도 리더의 끊임없는 기도와 장문의 메일을 통한 교육으로 이를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이현권사가 보내준 e메일은 가히 홍수, 폭탄이라고 할 정도. 흥정현 집사가 일주일 치 메일을 직접 프린트해서 들고 온 분량은 한 권의 책으로 묶어도 될 정도여서 다들 웃으며 불평 아닌 불평을 했지만, 읽기만 해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은혜가 체험되는 귀중한 영적 사워였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뿐만 아니라 그가 셀모임에 들고 오는 신앙서적은 한두 권이 아니다. 리더가 가방에서 책을 꺼내기만 해도 “에이, 책 안 산다니깐요!” 하며 부르짖는 장천재 집사. 늘 한발 뒤로 물러나지만 하나님께 옆드림으로 위암을 극복하고 교회 주차와 에버그린 등에서 남모르게 봉사하는 장-홍집사 내외는 셀모임 분위기 메이커로 항상 기쁨으로 집을 개방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최근에 New Brunswick에서 이사온 오정석 집사는 늘 크리스를 얘기해 분위기를 띄운다. 크리스는 오집사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 아들 예찬이가 자폐증상이 있어 키우게 된 개로 인한 오집사의 좌충우돌 애증의 스토리에 이현권사의 거룩한 조언이 더해지면 셀에는 순식간에 웃음 폭풍이 몰려온다. 오집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솔한 이야기, 부인 정인혜 집사의 예쁘고 잔잔한 표정에서는 어린 두 아들을 힘들게 키우는 풍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아이들로 인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며 기도하는 순전함만이 나타난다.



기도의 용사로 치자면 이선광-김보한 권사 가정을 빼놓을 수 없다. 대학시절 이민 와서 캐나다 주류사회의 일원이 된 이권사는 이순을 넘긴 나이에 전세계를 누비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부인 김권사의 요리는 먹기에 아까울 정도, 다들 사진부터 찍느라 바쁘다. 소녀인 듯 여신인 듯 포스를 풍기면서도 늘 집 안팎을 깔끔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바지런한 성품에다 봉사와 전도로 삶을 이어온 김권사의 간증과 행동은 모두에게 본, 그 자체다. 신실한 두 분의 전심을 다한 기도와 찬양을 들으며 곁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감동이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으로 태어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결코 태어나지 않는다.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리더의 신념에 따라 셀원들은 젖을 먹는 아기에서 벗어나 단단한 음식을 씹어 소화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훈련과 교육받으며 온갖 노력과 열정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4명의 셀원이 교회의 ‘하경삶’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뒤늦게 신앙의 길에 들어선 변승중-정현옥 집사 부부는 훈련 받고, 성경 읽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만나기에 열심이지만 갖가지 세상소리의 울림이 커질 때 마다 셀모임을 통해 다시 사랑과 은혜로 재충전을 받는 귀한 경험을 하고 있다. “주일예배 때마다 늘 말씀에 감동돼 눈물을 감추려 애쓴다”는 변집사에게서는 순전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절로 느껴진다. 지난 해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다녀 온 후 성령충만으로 셀모임 때 거의 춤추다시피 앞으로 몇 번이나 달려 나와 간증하던 이영호 집사, 그리고 부인 강순덕 집사와 딸 보람이 역시 리더인 이현권사에게 일대일 제자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귀한 셀원들이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 4:2)**

**“주 은혜 셀은 은혜를 나누는 셀입니다”**

주 은혜 셀은 특별히 올해 ‘전도’에 집중하여 셀원 각자가 실천하는 개인적인 전도 상황을 모임 때 마다 나누고 있다. 교회 안팎에서 행해지는 교육과 집회에 적극 참여하며 체험과 간증을 통해 셀모임은 선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현장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갈 예정인 박헌명-헬렌 권사는 틈틈이 예정 선교지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그곳 소식을 전하면서 셀원 모두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떠나기 전에 정리하고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아 함께 기도제목을 나누는 동안 셀식구 모두는 어느새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또 한 명의 예비 선교사라고 불리는 박문일 집사도 있다. 헤아리기에 벅찰 정도로 많은 간증을 지닌 박집사는, 오랜 시간이 걸려 멀리 돌아왔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교

## 셀탐방

회의 어떤 예배, 어떤 봉사현장에서도 마주칠 수 있는 그는 교회를 자신의 일터처럼 여기며 집에는 밤사이 잠 시 다니러 갔다 온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한다. “항상 마음을 비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내 인생이 공짜 되지 않도록 힘씁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에서 겸손한 성품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샘솟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교회 주차 봉사를 하는 그는 “우리 셀은 일명 주차 봉사 셀”(박권사, 변집사, 장집사 등 모두 4명이 주차봉사)이라며 다른 남성 셀원에게 은근한 압력을 넣으며, 나름 전문직(?)의 기능에 대해 설파하기도 한다.

###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 은혜 셀은 대 식구를 자랑한다. 한국에 있는 가정, 분가를 준비하는 가정, 그리고 특수 상황이라 신원을 밝히지 못하는 가정(^)과 그들의 자녀, 부모님까지 모두 주 은혜 셀의 기도와 사랑의 그물망에 들어와 있다. 모두의 이름을 한번에 부르기도 벅찰 정도지만 일일이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사랑을 나누는 한편, 셀에서 만나고, 봉사하면서 만나고, 예배에서 만나도 그때마다 반갑고 또 보고 싶은 식구들 그러므로 주 은혜 셀엔 늘 특별한 주 은혜가 넘쳐난다.

“우리는 정말 아무 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거나 쓰시는 게 아니니까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셀원 모두가 이런 한마음으로 작은 교회를 일구어 나간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배우고, 삶을 간증하는 교제를 통해 기쁨을 나누며, 기도로 섬기면서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는 셀처치, 우리가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일깨워 주는 셀처치, 바로 주 은혜 셀이다. ♣

[Jenny Jung 기자]

